

# 테베의 디오니소스 숭배의 기원: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파라오 세소스트리스\*

오 홍 식\*\*

## 《차 례》

- I. 머리말
- II. 디오니소스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
- III. 트라키아 사람 오르페우스
- IV. 오시리스와 파라오 세소스트리스
- V. 맺음말

## I. 머리말

이 논문은 테베(보이오티아)의 디오니소스 숭배가 언제, 어떻게 확

---

\* 필자는 처음에는 카드모스의 외손자 디오니소스가 신이 아니고 인간임을 보여주려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이내 디오니소스의 원형은 오시리스라는 고대그리스인들의 기록에 접하게 되면서, 디오니소스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를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디오니소스처럼 오시리스도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는데, 오시리스의 원정부분은 종교보다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 고대그리스인들에게 트라키아를 원정한 오시리스로 받아들여진 역사상의 인물은 누구일까? 답으로 여겨지는 것을 필자는 마틴 버널의 다음의 글로부터 얻었다. Martin Bernal, *Black Athena I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Chapter V Sesōstris, I: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for the Greek accounts of his conquest, pp. 187-235, 그리고 Chapter VI Sesōstris, II: The cultic, mythical and legendary evidence, pp. 236-273.

\*\* 성균관대 강사

립된 것인지를 구명(究明)하고자 쓰여진 것이다. 필자는 우선 그리스인이 전하고 있는 두 신화인 디오니소스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디오니소스 신화에 미친 오시리스 신화의 영향이 심대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그런데 디오니소스 신화는 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대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디오니소스 종교에 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디오니소스의 원정에 관한 부분이다. 필자는 디오니소스의 원정 지역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는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원정지역을 나타낼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디오니소스의 원정지역과 오시리스의 원정지역은 거의 동일하다. 디오니소스가 곧 오시리스라는 그리스인들은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그리스인들이 기록하고 있는 오시리스 또는 디오니소스는 그러한 원정을 한 역사적 인물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필자는 고대그리스인들이 기록하고 있는 오시리스의 원정 지역과 제12왕조(1985-1773 BC)의<sup>1)</sup> 파라오 세소스트리스의 원정지역이 동일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세소스트리스가 기원전 20세기 경 그리스인들에 의해 오시리스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특히 오시리스와 세소스트리스 모두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는데, 이 정복을 통해 트라키아에 디오니소스 숭배(또는 오시리스 숭배)가 들어왔고 테베의 디오니소스 숭배는 트라키아 사람 오르페우스에 의해 기원전 14세기경에 확립되었을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1) 이 논문에서 고대 이집트사와 관련된 연대, 파라오의 이름 따위는 Ian Shaw(editor),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에 근거하였다.

## II. 디오니소스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

이집트에서 축출된 페니키아 사람 카드모스는, 파로스 비문에 따르면, 기원전 1519/1518년에 보이오티아의 테베에 자신의 왕조를 건립한다. 아폴로도로스는 카드모스의 외손자 디오니소스의 탄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멜레에 관해 말하자면, 그녀한테 반해 제우스가 헤라 몰래 그녀와 동침하며 그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헤라한테 속아 그가 헤라한테 구혼할 때 다가갔던 모습으로 자기한테 와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제우스는 번개와 천둥을 든 채 수레를 타고 그녀의 침실로 다가가 벼락을 던졌다. 세멜레는 질겁하여 죽었고 제우스는 불에서 여섯 달 된 태아를 꺼내어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고 꿰맸다. **세멜레가 죽자 카드모스의 다른 딸들은 세멜레가 인간의 남자와 동침하고는** (συννηῖσθαι Θνητῷ τινι Σεμέλῃν) **제우스에게 그 죄를 석우다가 제우스의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sup>2)</sup> 때가 되자 제우스는 꿰맨 자리를 풀고 디오니소스를 낳아 헤르메스에게 맡겼다……. 디오니소스는 제우스가 새끼 염소로 둔갑시켜 헤라의 노여움을 피하게 했다. 그러자 헤르메스가 그를 아시아의 **니사**에 살던(ἐν Νύσῃ κατοικοῦσας τῆς Ἀσίας) 요정들한테 데리고 갔고 제우스는 후일 이들을 별자리로 바꾸어 **황아데스**라고 이름지어주었다. (아폴로도로스 3.4.3)<sup>3)</sup>

아폴로도로스는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와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 사이에

2) 에우리피데스, 『박코스의 여신도들』 23ff 및 242ff도 참조하시오.

3) 아폴로도로스의 국역은 천병희 선생의 번역을 따랐다. 아폴로도로스 지음(천병희 옮김),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도서출판 숲, 2002).

서 태어났다고 기술하면서, 세멜레의 자매들의 말도 전하고 있는데, 그녀들에 말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세멜레와 웬 외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났다. 디오니소스는 '니사'에서 자라나게 된다. 이어서 아폴로도 로스는 디오니소스의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를 발견한 뒤 헤라에 의해 미쳐서 이집트와 시리아를 떠돌아다녔다. 그는 먼저 이집트인들의 왕 프로테우스의 환대를 받은 뒤 프리기아의 키벨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레아에게 죄를 정화받고 비의를 배운 그는 그녀한테서 옷을 받아 가지고 트라키아를 지나 (인도를 치러) 달려갔다. 드리아스의 아들로 스트리몬 강변에 살던 에도네스족을 다스리던 리쿠르고스가 맨 처음으로 그를 모욕하고 배척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바닷 속으로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한테 피신했고 박코스의 여신도들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티로스들과 함께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리쿠르고스는 그곳에서 디오니소스의 뜻에 따라 말들에게 찢겨 죽었다.

디오니소스는 트라키아와 인도 전역을 통과한 뒤 그곳에 기둥들을 세우고 테베에 와서 그곳 여인들이 집을 떠나 키타이론 산에서 박코스적 광란에 몸을 맡기도록 강요했다..... 테베인들한테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디오니소스는 아르고스로 갔으나 그곳에서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자 여인들을 미치게 했다. (아폴로도로스 3.5.1-2)

이러한 활동을 끝낸 후 그는 저승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올라와 함께 승천한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가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 전에는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신들이었으나, 그 신들 중 어느 신도 인간 사제들과는 동시대에 살지 않았다. 이 신들이 왕위에 올랐다. 이 신들 중에서 나라를 다스린 마지막 신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였는데, 호루스를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이라고 부른다. 호루스는 티폰을 쫓아내고 신으로서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이었다. 오시리스는 그리스어로 디오니소스이다("Οσιρις δὲ ἐστὶ Διόνυσος κατὰ Ἑλλάδα γλῶσσαν).<sup>4)</sup> (헤로도토스 2.144.2)

기원후 100년경 그리스 사제 플루타르코스도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는 동일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시리스가 디오니소스와 동일 신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당신 클레아보다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델피의 [디오니소스의 헌신자들인] 영감을 받은 처녀들의 우두머리이며, 그리고 당신은 오시리스의 거룩한 의식에서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축성되었기 때문이다. (플루타르코스, *De Iside et Osiride* 35.364.E)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 신화의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 디오도로스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먼저 오시리스의 죽음에 관한 신화를 살펴보자.

그러나 프리아포스에 관한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옛날에 티탄(Tίταν)족이 오시리스에 대한 음모를 꾸며 그를 살해했고, 그 후 그의 시신을 똑같이 나눈 후 그 집을 떠났다.<sup>5)</sup> 그런데

4) 헤로도토스는 2.41.1에서도, 오시리스가 디오니소스라는 이집트인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5) 디오도로스 1.21.2도 참조하시오. “오시리스가 적법한 왕으로서 이집트를 통치하

그들은 이 장기(=성기)만은 강에 던져버렸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취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시스는 남편의 살해건을 추적하여 티탄들을 살해하였다. 여신은 조각난 남편의 시신을 인간의 형태로 짜맞춘 후 사제들에게 건네주며 오시리스에게 신의 영예를 표하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여신이 수습할 수 없었던 유일한 장기가 성기였으므로, 사제들에게 신전에 받기한 남근상을 세우고 그것에도 신의 영예를 표하라고 명했다. (디오도로스 4.6.3)

디오니소스 신화에도 디오니소스와 티탄의 싸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디오니소스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우선 티탄족(族)과의 전투를 예로 들어보자. 디오니소스가 제우스를 도와 티탄족에 대항해 싸움을 벌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그리스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집트 사제들)의 주장처럼, 티탄족의 시대를 세멜레가 살았던 시기로 연대를 잡는다거나 아게노르의 아들 카드모스가 올림포스의 신들보다 더 늙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을 것이다. (디오도로스 3.74.6)

디오니소스는 하나일 뿐이라는 그리스인들의 통념에 대해, 디오도로스는 이집트 사제들의 말을 빌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가 제우스를 도와 티탄족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였다면 디오니소스의 외할아버지 카드모스는 제우스를 위시한 올림포스

---

고 있을 때, 그는 폭력적이고 불경한 사람인 그의 형제 티폰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나서 티폰이 그 시신을 26조각내어 살해자들의 각각하게 한 부분씩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들 모두가 깨끗하지 못한 행위에 가담하기를 원했고, 이런 식으로 그는 그들을 그의 통치의 지속적인 지지자이자 수호자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신들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인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말이다. 제우스를 도운 디오니소스는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와는 다른 디오니소스라는 이야기이다.

오시리스 신화 중에서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종교의 영역에 속하지만, 오시리스의 원정 이야기는 역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오도로스는 오시리스가 이디오피아에 이른 후 어떤 경로로 인도에 이르렀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제 오시리스가 이디오피아의 경계에 도달하였고,... 이후 그는 홍해 해안을 따라서(παρὰ Ἑρυθρὰν θάλατταν) 아라비아를 거치고 마침내는 인도와 인간이 사는 세계의 끝까지 이르렀다. 그는 또한 적지 않은 도시들을 인도에 건설하였는데, 그것들 중의 하나를 그는 ‘니사(Nüsa)’라고 명명하였다. 그가 자라났던 이집트의 니사市를 기념하는 도시로 그곳에 남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디오도로스 1.19.5-7)

우선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홍해(Ἑρυθρὴ Θάλασσα)’는 오늘날의 걸프 만과 인도양을 말하고, 오늘날의 홍해는 ‘아라비아 만(Ἀράβιος κόλπος)’으로 표기되었다.<sup>6)</sup> 위 인용문에 니사라는 도시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폴로도로스에 따르면 그리스 땅에서 카드모스의 외손자로 태어난 디오니소스를 제우스가 헤라의 노여움으로부터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에 있는 니사’로 보냈다고 하지만, 디오도로스는 원래 니사는 오시리스가 자라난 곳으로 이집트에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니사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시요). 인도에 이르러 자신이 세운 한 도시에 자신의 고향 니사라는 도시 명을 붙여주었다

6) 헤로도토스 2.102.2도 참고하시요.

는 이야기이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의 사람인 헤로도토스도 오시리스가 인도에 원정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한 니사 부근에(περί τε Νύσων τὴν ἑρῆν) 사는 자들도 그런 특혜를 입었는데, 이곳에서 디오니소스는 그들의 축제의 신이었다. 이 이디오피아인들 및 그 이웃들은 인도의 칼란티에인들(Callantiae)이 사용하는 동일한 종자를 사용하며 지하에서 산다. (헤로도토스 3.97.2)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디오니소스인 오시리스가 인도에까지 원정하였다고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디오피아의 니사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종자와 인도의 칼란티에인들이 사용하는 종자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오시리스가 인도에까지 원정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원전 5세기 사람 헤로도토스의 상기의 문장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오시리스가 인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은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더의 인도점령까지의 원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7)</sup>

그런데 문제는 아폴로도로스는 제우스가 갓난아기 디오니소스를 피신시킨 곳이 ‘아시아의 니사’라고 기록하였지만,<sup>8)</sup> 헤로도토스는 그 니사가 이디오피아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7) 플루타르코스의 『알렉산더 대왕 전』(58.4)에 따르면, 알렉산더가 니사를 포위공격한 적이 있다. “한 번은 니사라는 도시를 포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도시와 마케도니아 군 사이에 있는 깊은 강 때문에 진군속도도 더디었고 포위자체를 병사들이 못마땅해 하였다.”

8) 한편 디오도로스(3.64.5)는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가 ‘아라비아의 니사’로 피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그리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디오니소스가 태어나자마자 제우스는 그를 자신의 넓적다리에 놓고 껴맨 후 ‘이집트 너머에 있는 이디오피아의 니사로’(ἐς Νύσαν τὴν ὑπὲρ Αἰγύπτου) 데려갔다. (헤로도토스 2.146.2)

필자는 디오니소스(오시리스)가 자라난 곳에 관해서는 아폴로도로스의 ‘아시아의 니사’보다는 헤로도토스의 ‘이디오피아의 니사’가 옳다고 생각한다. 아폴로도로스가 디오니소스를 그리스 고유의 신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디오니소스의 자라난 곳도 아시아로 바꾸어놓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디오도로스는 니사를 이집트에 있는 것으로 기록하였지만, 디오도로스 자신이 오시리스 때에 이디오피아가 점령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니사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니사이다. 니사는 오늘날 수단 북부에 있는 바르칼(Barkal) 산과 그 주변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도를 보시오), 이집트 상형문자로는 “신성한”으로 기록되었다 한다.<sup>9)</sup> 상기 인용문에서 헤로도토스가 니사 앞에 ‘신성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디오니소스도 오시리스도 인도에 원정하였고 모두 니사라는 지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모두 트라키아—오시리스의 트라키아 정복에 관해서는 제3장을 보시오—를 점령하였다. 디오니소스 신화의 바탕은 오시리스 신화이다.

9) 헤로도토스 3.97.2에 대한 Perseus Digital Library의 주석을 보시오. 『일리아드』(6.133)에서도 니사 앞에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다(κατ’ ἡγάθεον Νουσίῳ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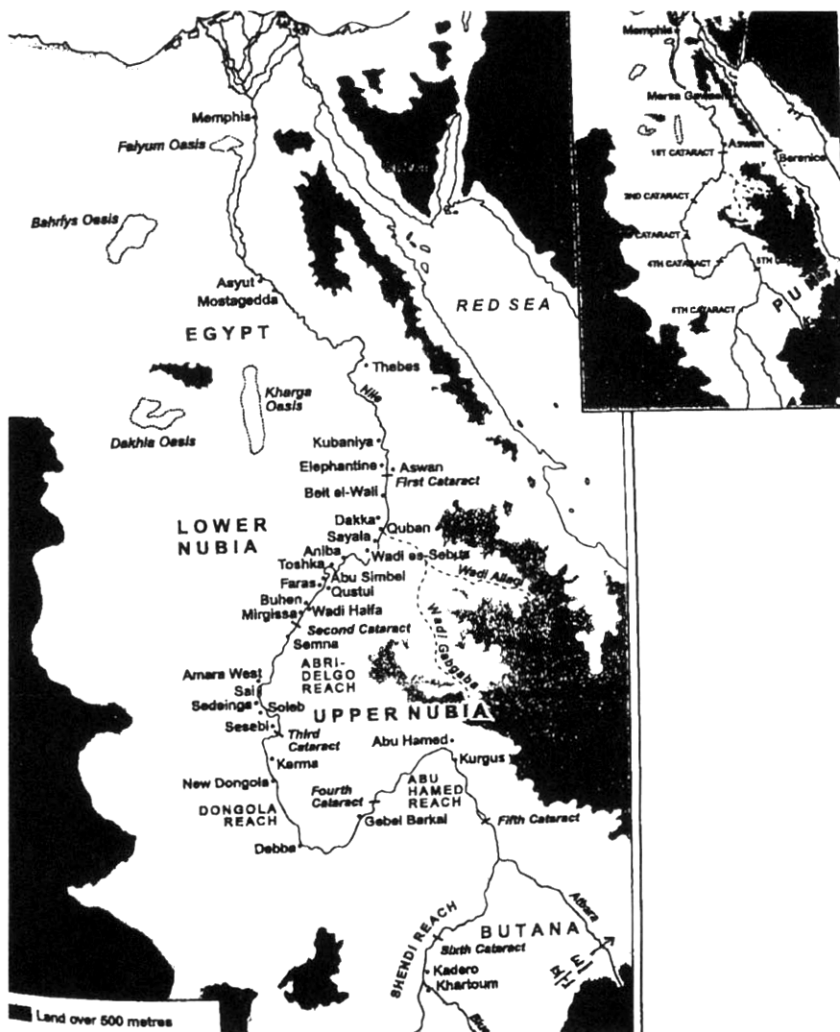


그림 1: 이집트, 누비아, 폰트의 지도.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2000), p. 323. 작은 지도를 보면 폰트에는 내륙에서 홍해로 나가는 길(지도상으로는 흰 색)이 있는데, 해안에 이르면 그곳이 오늘날의 에리트레아 북부가 된다. 제4폭포 부근의 Gebel Barkal이 '니사'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누구란 말인가? 헤로도토스는 디오니소스는 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일 따름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판과 디오니소스 두 신에 관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따르려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두 신들에 관한 나의 견해를 밝히겠다. 만약 세멜레의 아들 디오니소스와 페넬로페의 아들 판이, 암피트리온의 아들 헤라클레스의 경우처럼, 헬라스에 나타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헬라스에 살았다면, 그들 또한(헤라클레스의 경우처럼) 고대의 신들인 더 오래된 판과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인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헤로도토스 2.146.1)

앞서 아폴로도로스(3.4.3)는 지나가는 말로 “세멜레가 인간의 남자와 동침한(συννηυνῆσθαι Θνητῷ τινι Σεμέλῃν)” 결과 그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세멜레의 자매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박코스 신의 여신도들』에서 디오니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의 자매들은 누구보다도 그래서 안 되는데도,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며 세멜레는 어떤 인간과 동침하고는(Σεμέλῃν δὲ νυμφευθεῖσαν ἐκ Θνητοῦ τινος) 카드모스의 계략에 의하여 그 죄를 제우스에게 덮여씌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녀가 동침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까닭에 제우스께서 그녀를 죽이신 것이라고 자랑스레 떠들어대고 있다.

(에우리피데스, 『박코스 신의 여신도들』 26ff., 천병희 옮김)

기원전 5세기 에우리피데스의 시대에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그리스인들 사이에 적지 않게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

\*

\*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카드모스의 외손자인 인간 디오니소스가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페르세우스와의 싸움,<sup>10)</sup> 디오니소스가 아테네에 간 것,<sup>11)</sup> 디오니소스와 멜람푸스의 이야기일 것인데, 여기서는 멜람푸스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아폴로도로스는 멜람푸스(Melampous)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크레테우스는 이올코스를 세우고 살모네우스의 딸 티로와 결혼하여 세 아들 이아손과 아미타온과 페레스를 낳았다. 아미타온은 필로스에 살며 페레스의 딸 이도메네와 결혼한다. 그리고 두 아들 비아스와 멜람푸스가 태어났다... 한동안 멜람푸스는 메세네에 눌러 살다가 디오니소스가 아르고스의 여인들을 미치게 하자 왕국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들을 치료해준 다음 비아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아폴로도로스 1.9.11-12)

인용문에 따르면, 멜람푸스는 필로스에 태어나 자라다가 메세네로 이주하였고, 디오니소스가 아르고스 여인들을 미치게 하자 치료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아폴로도로스는 제2권에서는 그 미친 아르고스인들에 관해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0) 파우사니아스 2.20.4, 2.22.1.

11) 아폴로도로스 3.14.7.

프로이토스의 딸들은 다 자랐을 때 미쳐버렸는데 헤시오토스에 따르면 그들이 디오니소스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쿠실라오스에 따르면 그들이 헤라의 목조 신상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쳐서 아르고스 땅 이곳저곳을 헤맸고 나중에는 아르카디아와 펠로폰네소스를 지나 정신 나간 모습으로 황야를 돌아다녔다. 아바스의 딸 이도메네가 아미타온에게 낳아준 아들인 멜람푸스는... (아폴로도로스 2.2.2)

상기의 두 인용문을 종합하면, 아르고스 왕 프로이토스의 딸들이 디오니소스 의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디오니소스는 이 여인네들을 미치게 하였고, 멜람푸스는 아르고스 왕국의 일부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그 딸들을 치료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디오도로스도 멜람푸스에 관해 비슷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점쟁이였던 멜람푸스는 디오니소스의 분노로 인해 미친 아르고스의 여인네들을 치료하였고, 그 보답으로 아르고스인들의 왕인 아낙사고라스(=프로이토스의 손자)로부터 아르고스 왕국의 2/3를 받았고, 그는 거처를 아르고스로 삼고는 왕권을 그의 형제 비아스와 나누었다. 메가렌테스(=프로이토스의 아들)의 딸 이피아네이라와 결혼하여 그는 ... (디오도로스 4.68.4-5)

그런데 멜람푸스는 디오니소스 숭배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헤로도토스는 디오니소스 숭배를 최초로 그리스 땅에 도입한 멜람푸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아미테온의 아들 멜람푸스는 위의 제사에 대해 모르기는커녕 이에 정통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멜람푸스야말로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을, 그 제사와 남근상의 행렬 등과 함께, 그리스인에게 소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멜람푸스가 이것들 모두를 일괄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며, 그 뒤의 현자들이 그의 교설을 부연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니소스를 위해 남근상을 매고 행렬하는 의식을 소개한 것은 바로 멜람푸스 그 사람으로, 그리스인이 현재 행하고 있는 행사는 그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생각건대 멜람푸스는 유능한 인물로서 스스로 예언술을 고안해 내고 또한 이집트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혀 그것들은 그다지 변경시키지 않고 그리스에 소개했는데, 디오니소스 행사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집트에서 행해지는 이 신에 대한 행사와 그리스에서 행해지는 것이 비슷한 것은 조금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만약 우연의 일치라면, 그리스의 의식은 그리스적인 특성을 지녀야 하고 그 역사도 짧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행사와 그밖에 풍습을 이집트인이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의사는 없다. 아마도 멜람푸스는 디오니소스의 행사를 주로 티로스 사람 카드모스나 그를 따라 페니키아로부터 오늘날 보이오티아라 불리는 지방에 도래한 자들로부터(παρά Κάδμου τε τοῦ Τυρίου καὶ τῶν σὺν αὐτῷ ἐκ Φοινίκης ἀπικομένων ἐς τὴν νῦν καλεομένην χώραν) 듣고 배웠을 것이라는 견해가 가장 진실에 가까우리라 생각된다. (헤로도토스 2.49.1-3)<sup>12)</sup>

헤로도토스의 글은 설명되어질 부분이 있다. 그는 멜람푸스가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을 카드모스나 카드모스가 이끌고 온 자들로부터 배웠다고 하고 이집트에 가서 배웠다고도 말하기 때문이다.<sup>13)</sup> 디오도로스의 기

12) 박광순의 번역을 참조하였다(『헤로도토스 역사』(범우사, 2005)).

록을 보면 그가 디오니소스 숭배를 이집트에서 배웠음이 확실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멜람푸스는 이집트로부터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있는 제식, 크로노스 및 티탄族과의 전쟁에 관한 신화, 그리고 한 마디로 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다. (디오도로스 1.97.4)<sup>13)</sup>

그렇다면 멜람푸스는 디오니소스 숭배를 “티로스 사람 카르모스나 그를 따라 페니키아로부터 오늘날 보이오티아라 불리는 지방에 도래한 자들로부터” 배웠다는 헤로도토스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필자에게 카르모스는 멜람푸스보다 이전의 사람으로 여겨진다. 카르모스가 이집트에서 축출된 자로 페니키아인들을 이끌고 보이오티아에 정착하였다면, 보이오티아의 페니키아인들은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숭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헤로도토스가 말하려는 바는 멜람푸스는 디오니소스 숭배를 카르모스와 함께 동행한 페니키아인들 또는 그 후손들로

13) 안문자(『디오니소스 연구』, 『서양사론』 4 (1963), p. 28)도 이를 지적하였다. “이집트설을 주장하는 헤로도토스는 디오니소스와 오시리스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으며, Bacchic orgies도 이집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헤로도토스는 디오니소스의 leading votaries 인 Bessai 들은 드라키아인이라고 하면서(헤로도토스 7.111) 이집트설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보이고 있으며, ‘드라키아인들은 아레스, 디오니소스, 알테미스 단 세 신만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5.7.1), 이집트기원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에는 모순점이 있다.”

김봉철(『고대 그리스 ‘유럽성’에 대한 고찰』, 『서양사론』 90, 2006년 9월, pp. 36-37)도 디오니소스 숭배의 이집트 기원론을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기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신앙은 단번에 도입된 특정 지역의 신앙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시기에 여러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받아들여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집트 신앙의 요소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고기 이래 그리스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이집트적 요소는 디오니소스 신앙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보다는 프리기아나 트라키아, 혹은 페니키아의 요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디오도로스 1.96.2도 참조하시오.

부터 배웠지만, 후에 멜람푸스가 디오니소스 숭배에 관해 더 자세히 배우고자 본고장인 이집트로 유학하였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디오니소스 숭배는 기원전 15세기에 그리스 땅에서 행해졌다고 부커트는 고고학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이후 두 개의 발견물로 인해 새로운 전망이 열렸다. 디오니소스는 필로스에서 발굴된 선형문자 B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포도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케오스 섬의<sup>15)</sup> 아이아 이리니(Ayia Irini)에 있는 신전은 기원전 15세기부터 그리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숭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각별히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디오니소스에게 봉헌된 가장 초기의 명문을 지닌 디오니소스 신전이다.<sup>16)</sup>

그런데 앞서 인용했던 아폴로도로스의 글—“아미타온은 필로스에 살며 페레스의 딸 이도메네와 결혼한다. 그리고 두 아들 비아스와 멜람푸스가 태어났다... 한동안 멜람푸스는 메세네에 눌러 살다가”—에 따르면, 필로스가 멜람푸스의 고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 Ⅲ. 트라키아 사람 오르페우스

카드모스의 외손자인 인간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테베에서 중요한 신이 된 것일까? 디오도로스는 오시리스 신을 오르페우스가 그리스

15) 아티카의 남서쪽에 있는 섬이다.

16)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archaic and Classical*, (Basil Blackwell, Oxford: 1985), p. 162. 원 독일어판 제목은, *Griechische Religion der archaischen und klassischen Epoche*(Stuttgart: 1977)이다. 부커트(p. 162)는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의 미노스-미케네적 기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테베의 신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신이 보이오티아의 테베에서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집트의) 사제들에 따르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오르페우스는,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때 디오니소스의 입문식과 비의에 참석하였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였고, 카드모스 혈통에 대한 호의로서, 왜냐하면 그는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영예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신의 출생을 테베로 옮겨놓았다. (디오도로스 1.23.2)

디오도로스가 상기 인용문에서 말하는 디오니소스는 당연히 이집트의 오시리스이다. 이어서 디오도로스는 오르페우스가 오시리스의 탄생지와 그 의식을 그리스의 테베로 옮겨놓은 이유를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듣고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집트의 테베 시민이었던 카드모스의 자녀들 중에 세멜레가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자에게 능욕당하여 임신하게 되었고(ταύτην δὲ ὑφ' ὅτου δήποτε φθαρεῖσαν ἔγκουν γενέσθαι) 7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는데, 이집트인들이 주장하듯이 그 용모가 오시리스의 용모를 닮았다. 그런데 그러한 아이는 보통 산 채로 태어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신들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고 자연의 섭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카드모스는 선조의 법을 준수하라는 그에게 내려진 신탁에 따랐다. 그는 인간들 사이에 오시리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지니고 나타났다면(ὡς ἐπιφανείας τινὸς κατ' ἀνθρώπους Ὀσίριδος γεγεννημένης) 아이에게 금박을 입히고 재물을 바쳤다. 아이의 아버지를 그는 제우스로 삼아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시리스를 찬양하며 능욕당한 딸에게 쏟아질 비방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카드모스의 딸 세멜레가 제우스에 의해 오시리스를 낳게 되었다는 말이 그리스인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디오도로스 1.23.4-6)  
 디오도로스도, 이미 살펴본 아폴로도로스와 에우리피데스의 기록처럼, 카드모스의 외손자 디오니소스의 아버지는 인간 남자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가 어떻게 그리스의 디오니소스가 되었는지를 디오도로스는 상술하고 있는데, 이는 헤로도토스와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는 기록과 동일하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어디 출신일까?

그는 태생으로는 트라키아 사람 오이아그로스(Oeagrus)의 아들이었고, 문화와 음유음악과 시(詩)에서 그는 우리가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였다. (디오도로스 4.25.2)

그는 트라키아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언제 사람일까?

오르페우스는 헤라클레스와 동시대인이었고, 두 사람 모두 트로이 전쟁이 있기 100년 전에 살았고... (디오도로스 7.1.1)<sup>17)</sup>

디오니소스가 페르세우스와 동시대인이고, 오르페우스는 페르세우스의 증손자인 헤라클레스와 동시대인이니 오르페우스는 멜람푸스보다 후대의 인물이다. 이것은 그리스 땅에 디오니소스 숭배를 제일 먼저 들여온 자가 멜람푸스라는 헤로도토스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디오도로스는 오르페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배우기 전에 신들에 관해 상당히 알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7) 오르페우스와 리노스는 형제지간인데(아폴로도로스 1.3.2), 리노스가 테베와 와서 테베 시민이 되었고 18세가 안된 헤라클레스에게 수금을 가르쳤다고 하니(아폴로도로스 2.4.9; 디오도로스 3.67.2), 리노스와 오르페우스가 나이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다면 오르페우스는 헤라클레스보다 한 세대 가량 연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는 온 시간을 배움에 바쳐 신화가 신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배운 후 이집트로 여행하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지식을 더 늘렸고 그리스인들 중에서는 신들에 관한 지식이나 의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인(偉人)이 되었다. (디오도로스 4.25.3)

디오도로스는 오르페우스가 이집트에 가서 배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르페우스는 이집트로부터 그의 대부분의 신비의식을, 그가 유랑하며 벌였던 주신제(酒神祭)를, 그의 하데스에서의 체험에 관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어왔다. 오시리스 의식은 디오니소스 의식과 동일하고, 이시스 의식은 데메테르 의식과 매우 유사하여 명칭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하데스에서 불경한 자들에 대한 징벌(τὰς δὲ τῶν ἀσεβῶν ἐν ᾧδου τιμωρίας), 경건한 자들의 들판(τοὺς τῶν εὐσεβῶν λευῶνας),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상상의 산물인 환상적인 개념들—이 모든 것들이 오르페우스에 의해 이집트의 장례의식을 흉내내는 가운데 도입되었다. (디오도로스 1.96.4-5)

“하데스에서 불경한 자들에 대한 징벌, 경건한 자들의 들판”이라는 구절을 통해 오르페우스교의 일부내용을 추측할 수가 있다. 죽은 후에 경건했던 자들은 천국에 가고, 불경했던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확실히 국가종교 또는 정치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반적인 고대종교와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각 개인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이승에서의 업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이다. 어찌 되었든, 멜람푸스도 오르페우스도 디오니소스(또는 오시리스) 의식을 잘 알기 위해 이집트에 유학한 셈이다.

이는 미케네 그리스와 이집트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 아멘호텝 3세와 미케네 사이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케네에서 발굴된 이집트 파라오 아멘호텝 3세(1391-1353 B.C.)의 카르투쉬가 그려진 ‘채색도자기 명판(銘板)’(faience plaques)이 있다.<sup>18)</sup> 펜실바니아大의 고고학자 에릭 클라인은 이 명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 에게해 지역에서 이집트의 영향력이 상당했다고 믿는 학자들은 현재로서는 고고학계에서 소수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곧 출간될 책들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후기 헬라덕 IIIA’의<sup>19)</sup> 시기에 이집트와 에게해 지역 사이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개념을 재평가해야만 할 수도 있다.<sup>20)</sup>

18) Eric Cline, “An Unpublished Amenhotep III Faience Plaque from Mycena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10, No. 2.(Apr.-Jun., 1990), p. 211, 각주 57.

19) Cambridge Ancient History(제3판)에 따르면, LHIII A는 1380-1275 B.C.이다.

20) Eric Cline, “An Unpublished Amenhotep III Faience Plaque from Mycena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110, No. 2.(Apr.-Jun., 1990), p.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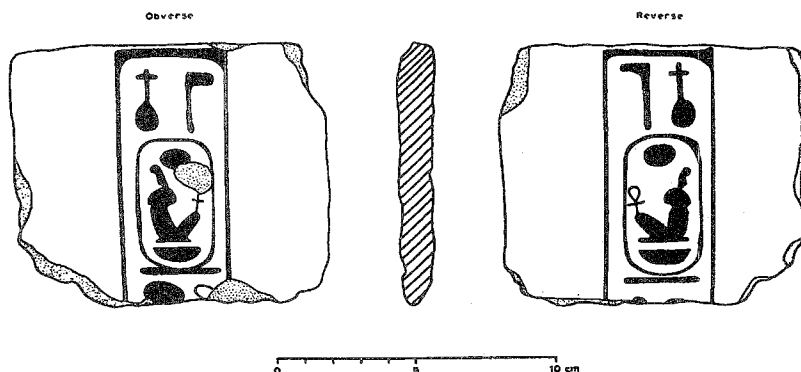


Fig. 1. Large fragment of Amenhotep III faience plaque (#68-1000) from Mycenae; found by Tylour in 1968.

그림 2: 발음은, ntr nfr Nb m3<sup>t</sup> R<sup>c</sup> (S3 R<sup>c</sup>). 뜻은, ‘좋은 신, 네브-마아트 레 (레의 아들)’.

그리고 그 파라오가 예게 해의 나라들에 파견한 대사들의 여정에 미케네가 포함되어 있다. 이집트 테베 부근의 콤-엘-헤이탄(Kom-el-Heitan)에서 예게 해의 지역들의 목록이 새겨진 조각상의 밑받침이 발견되었는데, 이집트 대사가 방문한 도시들에는 미케네가 언급되어 있다. 우드(Michel Wood)는 그 목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sup>21)</sup>

그 목록은 ‘케프티우(Keftiu)’(우리는 이제 그것이 크레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와 ‘다나야(Danaja)’라는 이름들로 시작된다. ‘다나야’는<sup>22)</sup> 호메로스가 그리스 본토인들을

21) Michel Wood, *In Search of the Trojan War*, (New York, Oxford, 1985), pp. 176-7.

22) Wood(*In Search of the Trojan War*, p. 166)에 따르면, “투트모세 3세의 재위 42년(기원전 1450년 경)의 비문에는 다나야가 보낸 조공물이, 네 개의 청동 용기와 ‘케프티우 제(製)’은 항아리 한 개와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아메노피스 3세 치세에 카르낙의 목록에는 다나야가, 우가리트와 키프로스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Danaans라고<sup>23)</sup> 부른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은, 크레타에 있는 암니소스(Amnisos), 파이스토스(?), 키도니아이고, 본토의 지명으로는 미케네('Mukanu'), '데가야스(Deghajas)'라고 불리는 확인되지 않은 지명, 메세니아, 나우폴리아, 키테라 섬, 이집트학 학자들이 일로스(Ilios)로 잘못 확인하고 있는 '윌리아(Wilia)'가 나온다. 그리고는 크레타로 되돌아가 크놋소스, 암니소스, 리크토스(Lyktos), '세테이아(Seteia)'로 여겨지는 지명이 언급되며 끝난다.

그런데 오시리스에 관한 이집트인들의 이야기를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시리스는 또한 코끼리 사냥에 흥미가 있었고, 도처에 그의 원정을 말하는 문자가 새겨진 기둥을 남겼다. 그는 아시아의 그밖에 모든 나라들도 방문하였고, 헬레스폰트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갔다. 트라키아에서 그는 그의 원정에 반대하는 오랑캐들의 왕 리쿠르고스를 살해했고, 이제 나이가 든 마론을<sup>24)</sup> 그는 그곳에 남겨놓아 그가 그 땅에 도입한 식물들의 경작을 감독하게 하였고, 그에게 그의 이름을 딴 도시를 세우라 하고는 그 도시를 마로네이아라고 명명하였다. (디오도로스 1권 20장 1-2)

앞서 인용했던 아폴로도로스(3.5.1)에 따르면, 트라키아 왕 리쿠르고스는 디오니소스가 죽인 자인데,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오시리스도 트라키아 왕 리쿠르고스를 살해하였다! 디오니소스가 곧 오시리스라면, 트라키아를 정복한 것은 카드모스의 외손자가 아니라 오시리스이다. 오

23) 호메로스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영어로 'Danaans'로 번역되는 희랍어는, 'Δαναοί'이다. 『일리아드』 1권에만도 7번이나 나온다(40, 55, 85, 95, 105, 255, 455 행).

24) Charles B. Newcomer, "Maron: A Mythological Study," *Classical Philology*, vol. 2, no. 2. (Apr., 1907), pp. 193-200.

시리스가 트라키아를 정복했다면 트라키아는 오시리스 숭배의식 또는 디오니소스 숭배의식이 전파된 곳일 것이다.<sup>25)</sup> 헤로도토스는 트라키아가 오랜 디오니소스 숭배를 지닌 곳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트라이인들(Satrae, σάτρα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측된 경험이 없는 자들이다. 트라키아인들 중에서 이들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숲과 눈으로 덮인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뛰어난 전사들이다. 바로 이들이 디오니소스에게 신성한 예언의 장소를 갖고 있다. 이 장소는 그들의 가장 높은 산들 속에 있다. 사트라이인들의 한 씨족인 베소이(Bessi) 족은 그 신전의 예언자들이다(Βησσοὶ δὲ τῶν Σατρῆων εἰσὶ οἱ προφητεύοντες τοῦ ἱεροῦ). 그곳에는 텔포이의 경우처럼 신탁을 말하는 무녀가 하나 있는데, 신탁의 절차가 그 곳처럼 복잡하지 않다. (헤로도토스 7.111.1-2)

그런데 마틴 버넬은 상기의 헤로도토스의 인용문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다.

헤로도토스와 후기의 저자들은 Satrai와 Bessoi라고 불리는 먼 곳의 부족 집단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디오니소스의 트라키아적 숭배들에 관한 글을 썼다. 나는 제4권에서 Satyroi처럼, Satrai라는 이름은 이집트어 동사 sntr(성화하다)로부터의 \*Sntrw의

25) 프리기아도 디오니소스 숭배를 그리스 땅에 전래시킨 중요한 지역으로 고대그리스인들에 의해 언급되어왔는데, 헤로도토스의 다음의 기록에 비추어본다면 프리기아의 디오니소스 숭배는 트라키아로부터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마케도니아인들의 말처럼, 이 프리기아인들이 유럽에 거주했을 때는 브리게스(Briges)라고 불렸는데, 유럽에서 그들은 마케도니아인들의 이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아시아로 이주하고서는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서 프리기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헤로도토스 7.73.1)

형태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주장할 것이다. 비슷하게 Bessoi 라는 이름은 동사 bs(시작하다)로부터 나온 이집트어 \*Bsw(입문자들)로부터 가장 그럴듯하게 파생될 수 있다.<sup>26)</sup>

디오니소스 숭배와 관련있는 두 집단인 Satrae와 Bessoi가 이집트에 어원을 두고 있다면 이는 트라키아의 디오니소스 숭배가 이집트에서 유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언어학적 증거가 된다.

#### IV. 오시리스와 파라오 세소스트리스

트라키아에 오시리스 숭배 또는 디오니소스 숭배는 언제,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디오니소스와 오시리스에 관한 기록이 비슷한데, 오시리스와 매우 비슷한 업적을 남긴 이집트 파라오가 있다. 오시리스의 원정지역 중에서 우선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홍해, 걸프 만과 인도양 연안지역, 아시아(또는 인도)를 파라오 세소스트리스(Σέσωστρις)도 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집트) 사제들에 의하면, 세소스트리스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함대를 이끌고 아라비아 만을 떠나 홍해 연안의 주민들을(ἐκ τοῦ 'Αραβίου κόλπου τοὺς παρὰ τὴν Ἑρυθρὴν θάλασσαν) 정복하고 나아가 물길이 알아서 배로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지역에게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헤로도토스 2.102.2)

26) Martin Bernal, *Black Athena: The Archaeolog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vol. 2,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p. 244.



또한 세소스트리스 왕은 유일하게 이디오피아를 통치한 이집트 왕이다. (헤로도토스 2.110.1)

세소스트리스가 점령한 지역들에 관해, 스트라본도 헤로도토스와 거의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세소스트리스가 이디오피아에서 아라비아 남부 해안 쪽으로 건너간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해협은 이디오피아를 향해 데이레(Deire)라고 불리는 곳(串)에 의해 그리고 동일한 이름을 지닌 작은 도시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그 도시에는 ‘물고기를 먹는 사람들’(Ichthyophagi)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 사람 세소스트리스의 석주가 있다 하는데, 상형문자로 그가 그 만을 건너 것을 기록하고 있단다. 명명백백히 그는 이디오피아인들의 나라와 Troglodytes인들의 나라를 복속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건너갔고, 그곳으로부터 아시아 전체에 침입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곳에, 그들의 말에 따르면, 세소스트리스의 율타리와 이집트 신들의 신전들의 재현물들이 있다. 데이레 해협은<sup>27)</sup> 그 폭이 60 스타디움이다.<sup>28)</sup> (스트라본 16.4.4)

디오도로스는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본이 세소스트리스로 부른 파라오를 세소오시스(Σεσόωσις)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걸프 만 및 인도양 해안지역, 그리고는 인도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는 그의 군대를 준비한 후, 우선 이집트 남쪽에 거주하고

27) 데이레는 ‘목(neck)’이라는 의미로 오늘날의 Bab-el-Mandeb 해협인데,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가면 아라비아의 예멘에 이른다.

28) 1 스타디움이 200m 가량 되니, 12Km에 해당한다.

있는 이디오피아인들을 향해 진격하여 그들을 정복한 후 그는 그 사람들에게 흑단, 황금, 상아를 조공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 후 그는 400척의 함대를 홍해로(εἰς μὲν τὴν Ἐρυθρὰν Θάλατταν) 출항시켰는데, 전함을 건조한 최초의 이집트인이 되었고, 해역의 섬들을 점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이르는 본토의 연안을 복속하였다. 한편 그 자신은 군대를 거느리고 육로로 진군하여 아시아 전체를 복속하였다. (디오도로스 1.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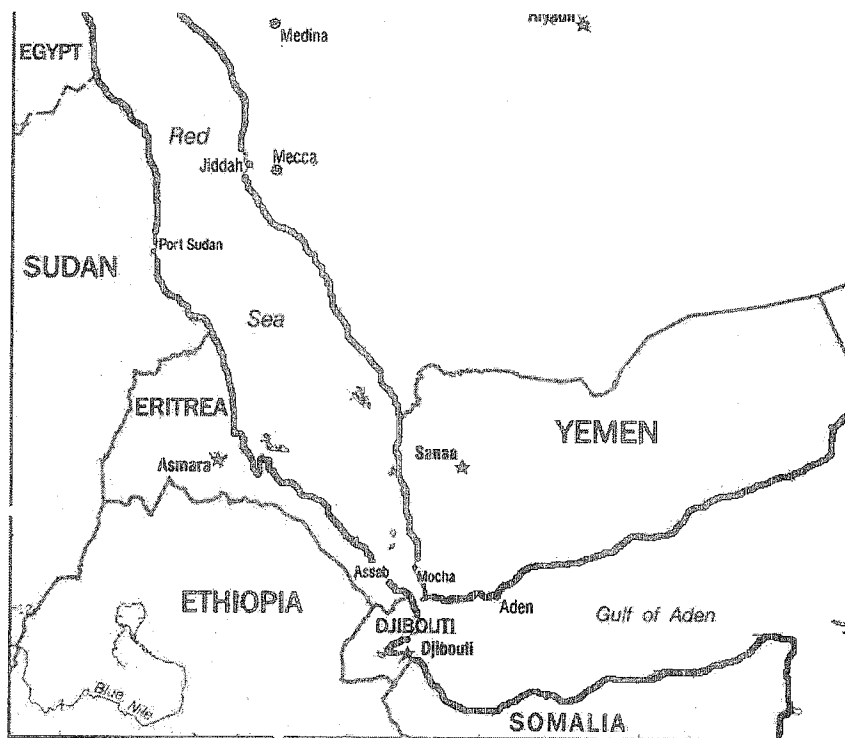


그림 3: Deire는 오늘날의 Bab-el-Mandeb 해협인데, 지부티에서 예멘에 이르는 최단거리(12Km)의 해협. 예멘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Mocha의 남쪽 해안에서 홍해 쪽으로 돌기처럼 나온 곳에 위치한 해협이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다면 세소스트리스도 그 지역을 정복하였다. 헤로도토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세소스트리스는 대륙을 석권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스키타아인 및 트라키아인을 정복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집트 군대가 가장 멀리 도달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에 든 민족의 국토에서는 기념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그보다 먼 곳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 2.102)

디오도로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는 대부분의 키클라데스 제도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나머지 모두를 복속하였다. 그리고 유럽을 건너고 트라키아를 통해 진군한 후, 그는 군량 부족과 그 땅의 험한 특성으로 인해 군대를 거의 잃었다. 그리하여 그는 트라키아에서 그의 원정의 한계를 그었고, 그가 얻었던 지역들의 많은 곳에 석주를 세웠다. 이것들은 소위 이집트 “신성” 문자로 다음과 같은 비문을 담고 있다. “이 땅을 왕들 중의 왕이자 군주들 중의 군주인 세소오시스가 자신의 군대로 정복하였노라.” (디오도로스 1.55.6-7)

이처럼 세소스트리스와 오시리스가 이디오피아, 홍해, 걸프만과 인도양연안을 정복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일부 학자들은 세소스트리스를 람세스 2세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다. 람세스는 트라키아를 공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북쪽으로의 원정은 히타이트와의 싸움인 카데시 전투

에서 막히게 된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초기인 기원전 300년경 이집트 사제로서 그리스어로 이집트 통사(通史)인 *Aegyptiaca*를 쓴 마네토는 세소스트리스를 분명히 제12왕조의 파라오로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12왕조는 테베의 일곱 명의 파라오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라오 세손코시스는 암마네메스의 아들로 46년간 재위에 있었고, 두 번째 파라오 암마네메스는 38년간 재위에 있다가 자신의 환관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세 번째 파라오 세소스트리스(Σέσωστρις)는 48년간 재위에 있었다. 그는 9년 동안에 아시아 전체 그리고 트라키아에 이르는 유럽을 복속하고는 정복의 기념물들을 도처에 세웠다. 그는 용감하게 싸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남성의 성기를, 비열한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기를 석주에 새기게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집트인들에 의해 오시리스 다음의 존재로 존경받았다. (마네토, 단편 34)

마네토가 말하는 제12왕조의 세소스트리스는 우선 헤로도토스가 말하는 그리스어 세소스트리스와 왕명이 동일하다. 그리고 정복지가 아시아 전체와 트라키아에 이르는 유럽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리고 “그는 용감하게 싸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는 남성의 성기를, 비열한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성기를 석주에 새기게 하였다”는 귀절을 세소스트리스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다음의 기록과 비교해보라.

사제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그 원정에서 이집트로 귀환하자 대군을 징집하여 대륙을 석권하고 그 진로를 가로막는 민족을 모두 평정했다.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용감히 싸운 민족의 경우, 세소스트리스는 그 땅에 석주를 세웠고 언제나

자신의 이름과 조국의 이름을, 자신의 무력으로 그 민족을 정복하게 된 내력을 새겨넣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다 할 전투도 하지 않고 쉽게 항복한 도시들의 경우, 그는 앞의 경우와 똑같은 내용만이 아니라 여자의 성기를 기념비에 새겨 넣게 하였다. 그 곳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용기가 없었음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다. (헤로도토스 2.102.3-5)

문헌학적으로 세소스트리스는 트라키아에 원정했음이 틀림없다.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는 세소스트리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누스레트(Senusret) 3세는 아마도 중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군주일 것이다. 그의 업적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명성을 더하였고, 그리하여 마네토와 헤로도토스가 묘사하고 있는 ‘세소스트리스’라는 인물—일종의 복합적 성격을 띤, 중왕국의 영웅적 지배자—의 형성에 기여하였다.<sup>29)</sup>

그런데 필자는 세소스트리스를 이집트학 학자들이 말하는 세누스레트 3세(c.1870-1831 BC)보다는 세누스레트 1세(c.1956-1911 BC)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기의 마네토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

따라서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오시리스 바로 다음의 존재로 존경받았다(ὡς ὑπὸ Αἰγυπτίων μετὰ Ὁσίριν πρῶτον νομισθῆναι).

세소스트리스는 ‘오시리스 바로 다음의 존재’로 존경받았는데, 세누스레

29) Ian Shaw(editor),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66. 제7장 “The Middle Kingdom Renaissance (c.2055-1650)”(pp. 148-184)은 Gae Callender가 집필하였다.

트 1세는 중왕국에서 오시리스 숭배를 진작시킨 파라오였다. 『옥스퍼드 고대이집트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누스레트 1세는 아비도스에 있는 Khenti-amentiu-Osiris 신전을 개조하였다. 왕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왕의 관리들도 아비도스에 수많은 기념석주와 작은 신전들(또는 ‘cenotaphs’)을 세웠다. 이는 중왕국과 신왕국에서 재력이 있는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표준이 될 관행이 될 것이었다. 세누스레트가 오시리스 숭배에 보인 관심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신앙과 관행이 만개하였고, 사후의 삶에 대한 왕의 믿음과 신민의 믿음 사이의 간격이 괄목할 만하게 줄어들었다.<sup>30)</sup>

고고학적 증거는 없을까. 제12왕조 때 이집트가 소아시아에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1927년에 조지 알렌(T. George Allen)은 소아시아의 Kürigin Kaleh에서 발굴된 작은 조상이 스타일, 재료, 각문으로 보아 중왕국 때에 제작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sup>31)</sup>

세소스트리스가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다는 헤로도토스, 마네토, 디오도로스의 기록을 뒷받침해줄 수도 있는 미트 라히나(Mit Rahina) 비문이 1974년 미트 라히나(옛 뽀피스)에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 밑받침에서 발견되었다. 그 비문은 제12왕조 의 두 명의 파라오인 세누스레트 1세와 그의 아들 아메넬하트(Amenemhat II, c. 1911-1877 BC)가 벌인 원정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원정들 중의 일부는 아프리카에 관한 것이었으나 대부분은 아시아와 관련된 것이었다. 첫 번째 원정대는 시나이에 갔

30) Ian Shaw(editor),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162.

31) T. George Allen, “A Middle Kingdom Egyptian Contact with Asia Minor,” *The American Journal of Semitic Languages and Literature*, vol. 43, no. 4, (Jul., 1927), p. 296.

고, 두 번째 원정대는 Hnty-š(레바논)에 갔고, 파라오가 직접 이끈 세 번째 원정대는 Stt에 갔다. 그런데 Stt는 북쪽 코트머리에 있는 나라의 이름으로 제11 왕조 이래 ‘아시아’(오늘날의 소아시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다.<sup>32)</sup> 필자가 아직 이 비문에 관한 논문들과<sup>33)</sup> 비문의 전체 번역문을 입수하지 못해 그 비문에 대한 견해표명은 미루어야만 하겠다.

## V. 맺음말

필자는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숭배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숭배로부터 유래하였고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카르모스의 외손자일 뿐이라는 고대 그리스인의 기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디오니소스 신화와 오시리스 신화를 비교한 결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은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기록에는 근거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두 신의 원정지역들이 거의 동일한 데, 원정에 관한 기록은 종교에 관련되었기보다는 역사와 관련되었다고 필자에게는 여겨졌다. 그런데 오시리스의 원정지역과 제12왕조의 파라오 세소스트리스(세누스레트 1세)의 정복지역이 거의 동일한데, 모두 트라키아를 정복하였다. 기원전 20세기 경 트라키아에 오시리스 숭배가 그 파라오에 의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기원전 14세기 경 트라

32) Martin Bernal, *Black Athena*, vol. 2, pp. 188-189를 보시오. 그리고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p. 163도 참조하십시오.

33) S. Farag, "Une inscription memphite de la XIIIe dynastie." *Revue d'Égyptologie* 32(1980): 75-81; G. Posener, "A New Royal Inscription of the XIIth Dynasty." *Journal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Egyptian Antiquities* [Toronto] 12(1982): 7-8; D. O'Connor, 'The Bronze Age evidence', paper given at the 42nd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Berkeley, 26-29 April, 1990.

키아 사람 오르페우스에 의해 디오니소스 숭배가 보이오티아의 테베에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제 필자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 그리스 신화는 미케네 문명이 형성될 때 고대 오리엔트와 이집트의 영향이 컸음을 말하고 있다. 고대그리스인들은 미케네 그리스가 외래 문명을 받아들였다는 데에 대단히 솔직한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솔직만 하였던 것일까?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솔직하게 보이지만, 고대그리스인들은 나름대로의 커다란 방어기제(防禦機制)를 가지고 기술하였던 것이다. 오시리스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카드모스의 외손자 디오니소스로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를 헬레네스의 시조 헬렌이 섬기는 제우스의 아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스신화에는 *Hellenes*라는 개념을 형성하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순수한 이집트인의 혈통”을 지닌 자로 스파르타의 국조(國祖)이기도 한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의 아들이 된 경우도, 필자에게는 디오니소스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Abstract>

The Origin of the Dionysus cult in Thebes:  
Dionysus, Osiris, and Pharaoh Sesostris

Oh, Hung-Shi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bring a subject to light when and how the Dionysus cult in Thebes was founded. First of all, I try to show the influence of the myth about Osiris upon the Greek Dionysian myth. Especially the regions which Dionysus conquered are almost same as those into which Osiris made expeditions. Dionysian myth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the one concerning Dionysus cult and the other concerning the Dionysian expeditions. I suggest that the regions which Dionysus or Osiris conquered were regions into which historical figure relating to Dionysus or Osiris made expeditions.

In Chapter 4 'Osiris and Pharaoh Sesostris', which is greatly influenced by Martin Bernal's *Black Athena II* (especially chapters 5, 6 on Sesostris), I try to show that the regions into which Osiris made expeditions are almost same as those into which Sesostris, one of the pharaohs in the Twelfth Dynasty(1985-1773 BC), made expeditions, who especially conquered Thracia (Dionysus also conquered Thracia), and that the Osiris religion(or Dionysus cult) was introduced into Thracia by Sesostris, and was founded in Thebes around the 14th century BC by Orpheus the Thracian.

주제어 : 디오니소스, 오시리스, 세소스트리스, 오르페우스, 테베

Key Words: Dionysus, Osiris, Sesostris, Orpheus, Thebes